

교회소식

1. 인사 : 주님께 칭찬받는 성도가 됩시다.
2. 어린이예배 : MCCY의 12세 미만 아동들의 모임/활동을 중단권고에 따라 10/10일까지 어린이예배는 별도로 드리지 않습니다.
3. 예배와 모임에 모이기를 힘쓰며 하반기 신앙의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4. 새벽예배 : Youtube 채널 : 싱가포르 선한목자교회 / 새벽설교본문 : 당일 QTin 본문
- 5.

교우동정

1. 한국방문 : 강인경/르우벤/엘리엇, 김민/요한
김성은/김혜림/김주원
2. 복귀 : 함문환/진혜주/함윤슬(10/10)

향기로운 예물

이름이 누락된 분은 확인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헌금

문성보/김의환 신인연/이종욱 무명

십일조

신인연/이종욱 문성보/김의환 신성진 이영주 배현주 문채은 기선준 기명준 무명

선교헌금

신인연/이종욱

성전헌금

문성보/김의환

자녀감사헌금

문성보/김의환 유정숙

주일헌금

문채영 정지우/한주희/정세린 문채은 박혜정 문인경 유정숙 기선준 기명준 김성은/김혜림 신성진

방문 & 교우등록

방문

8

등록

5

SINGAPORE GOOD SHEPHERD KOREAN 싱가포르 선한목자교회



2021표어

주님께 칭찬받는 성도

(요한계시록 3:7~13)

목표 / 신명기 10:12

1.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 예배생활
2.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 말씀읽기와 기도생활
3. 하나님을 섬김으로 - 헌금생활과 직분감당

주일예배

예배인도 / 문성보 목사

* 묵상기도	다같이
* 예배의 부름	인도자
* 찬송/44장	다같이
* 교독문/48번	다같이
* 사도신경	다같이
기도	박혜정 집사
교회소식	인도자
성경봉독	문성보 목사
설교	다같이
찬송/407장	다같이
* 봉헌	다같이
* 결단의 찬양	다같이
* 축도	문성보 목사

*표는 일어서서 합니다.

건지셨고, 건지실 것이며
건지시기를 바라노라
고린도후서 1:8~11

온라인헌금

POSB
733-14268-5
Good Shepherd
Korean Church

감사 Gratitude
십일조 Tithe
선교 Mission
성전 Worship Place
자녀감사 Children
주일 Offering

이름과 헌금코드를
넣어주세요
ex) 감사 문성보 =>
GMSUNGBO

빌립보 프로젝트

매월 넷째주에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선교사들을 돕기 위한
<선교동참헌금>에
참여합니다.

2021년 10월 10일
성령강림 후 제 19주
제 13권 41호



기 독 교 대 한 감 리 회
싱가포르선한목자교회

설립일 : 2009년 11월 21일

담임목사 문 성 보
Rev. Moon, Sung-Bo

홈페이지 www.sgskc.com



페이스북 www.facebook.com/SGSKC

핸 드 폰 +65) 9185-6991

이 메 일 pastor.sgskc@gmail.com

주 소 18 Howard Road,
Novelty Bizcentre #07-06
Singapore 369585

예배/모임

주 일 예 배	주일 11:00
어 린 이 예 배	주일 11:00
새 벽 예 배	화~토 05:00
금 요 기 도 회	잠정중단
속 회 모 임	속회별
Youth 모 임	주일 13:00

월별계획

October

24 선교동참주일

November

21 맥추수감사주일
교회설립12주년기념주일
28 선교동참주일

대표기도

10/17	한주희 집사
10/24	정지우 성도
10/31	함문환집사

헌금위원

10월	문인경 성도
11월	이종욱 권사



성경통독본문 Weekly BIBLE READING

10/11(월)	이사야 25~27
10/12(화)	이사야 28~30
10/13(수)	이사야 31~33
10/14(목)	이사야 34~36
10/15(금)	이사야 37~39
10/16(토)	이사야 40~42
10/17(일)	없음

금주의 소그룹 큐티나눔

10월 2주

애굽의 몰락

본문 | 에스겔 30:10-26 (10월 7일 본문)
찬송 | 새251 통137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핵심구절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은 들어 주고 바로의 팔은 내려뜨릴 것이라 내가 내 칼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고 그를 들어 애굽 땅을 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겔 30:25)

01. **마음 열기** 내가 기쁨 때 함께 기뻐해주고 슬플 때 함께 울어준 사람은 누구입니까?

02. **본문 이해하기** 하나님은 오랜 강대국인 애굽의 두 팔을 꺾으시고 바벨론을 들어 그를 심판하십니다. 애굽인들이 자신들을 지켜준다고 믿었던 각종 우상으로 가득한 도시들을 부수고 멸하시어, 애굽의 명예를 꺾고 그 교만한 권세를 멈추게 하십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이 믿고 의지할 대상은 애굽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임을 알게 하십니다.

03. **말씀으로 나눔하기** ① 애굽의 멸망 (10-12절)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종살이를 했으면서도 어려운 일만 생기면 애굽을 그리워하고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애굽은 이스라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다른 강대국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게 됩니다. 내게 도움이 되리라 믿으며 의지하는 것(사람)은 무엇입니까? 언제까지 그 도움을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까?

② 심판받는 우상의 도시들 (13-19절)
하나님이 우상으로 가득한 애굽의 주요 도시들을 심판하여 애굽의 명예를 꺾고 그 교만한 권세를 그치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이로써 우상이 헛되다는 것과 하나님만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십니다. 내가 우상 삼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 사건으로 우상의 헛됨을 알게 된 적이 있습니까?

③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20-26절)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의지하던 애굽의 두 팔을 꺾으신 반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바벨론의 팔은 견고하게 하십니다. 결국 바벨론이 애굽을 치게 하신 것은 하나님만이 믿고 의지할 여호와임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나의 두 팔이 꺾어진 일은 무엇입니까? 그 사건이 회개하여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라고 주신 사건임을 인정합니까?

04. **구속사로 해석하기** 야곱과 그의 열두 아들은 기근을 피해 하나님이 주신 땅을 떠나 애굽으로 갔지만, 그곳에서 400년간 종살이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의 학대로 인해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그들을 출애굽시켜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크고 작은 일이 생길 때마다 애굽을 잊지 못하고 애굽의 부유함과 힘을 그리워하며 의지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인 바벨론의 침공으로 위기에 처합니다. 그러자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거듭된 경고의 말씀에도 다시 애굽의 도움을 받아 그분의 징계를 피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이 애굽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임을

을 알게 하시려고 강대국 애굽을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게 하십니다.

05. 말씀으로 기도하기

개인 | 제가 의지하던 사람이 떠나고 기대하던 일들이 무너지는 사건을 겪으며,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도록 인도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의 구원을 위해 수고하고 있는 가족과 지체들을 만나주셔서 함께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공동체 | 단기간에 경제 부흥을 이루어 잘살게 되니 어느새 애굽처럼 교만해진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교회를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이 땅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묵상간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 서두리

저는 오직 아들의 교육을 인생의 목표로 삼으신 가난한 농부의 2남 6녀 중 차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엄격하신 아버지의 강요로 누이들이 희생한 덕에 저는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었고, 그 사랑에 빚진 자로 가족을 가난에서 구제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고 자랐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명문대에 입학할 수 있었지만, 저의 대학 생활은 가난 때문에 머리 돌 곳 없는 나그네의 삶이었습니다. 이런 극한 가난은 저의 꿈을 송두리째 빼앗아갔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가난이 저를 구원으로 이끌었습니다. 가족 부양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게 살고 있던 스무 살에 자진해서 교회에 나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 심을 얻었기 때문입니다(마 11:28). 하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며 새 출발을 했지만, 가난은 여전히 저의 현실이었습니다. 또한 매일 말씀을 읽고 듣고 외우고 공부했지만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이해했지,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으로 제 머릿속에 차곡차곡 쌓일 뿐 삶의 변화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아내를 따라 구속사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공동체에 속해 큐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양육과 훈련을 받은 후에 교회 소그룹 리더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설교말씀을 듣고 소그룹 모임에서 말씀으로 삶을 나누면서 비로소 각종 우상을 섬기고 기복적인 가치관에 빠져 있던 저의 모습을 직면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그런 저의 모습을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끊임없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집을 사면 집값이 내려가고, 팔면 집값이 오르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돈을 빌려주고 못 받기를 수차례 겪기도 했습니다. 주식 투자를 했다가 역대 손해볼 보기도 하고, 심지어는 보이스 피싱까지 당하며 모든 강이 마르고 땅은 황폐하게 되었습니다(12절). 애지중지 키운 딸은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여 일본에 흩어져 살게 되었고(23절), 아들은 작곡가로 일하다가 별이가 안 되어 언제 문을 닫을지 모르는 신생기업에서 두려움 가운데 일하고 있습니다(13절). 그러다가 급기야 2년 전, 저의 우상이던 아내마저 교통사고로 6시간 만에 제 곁을 떠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15절).

하나님은 제가 의지하고 있던 모든 것을 칼로 쳐내고(11절), 없애며 부수고(13절), 불태우고(14절), 포로로 붙잡아 가고(17절), 남은 성한 팔마저 꺾어 무능하게 만드셨습니다(22절). 이렇게 수십 년에 걸쳐 저의 우상인 물질과 가족 우상을 황폐하게 하심으로 주께서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셨습니다(25절). 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셔서, 지난 사건들이 모두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인정하게 하신 주께 감사드립니다.

QTin

큐티인 본문

10/11(월)	에스겔 32:17~32
10/12(화)	에스겔 33:1~9
10/13(수)	에스겔 33:10~20
10/14(목)	에스겔 33:21~33
10/15(금)	에스겔 34:1~16
10/16(토)	에스겔 34:17~31
10/17(일)	에스겔 35:1~15